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12호

2024년 5월

전국 봄 집회를 앞두고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마 27:35-66)	전 준 덕	3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손 현 섭	16
산파이신 하나님	연 창 호	23
바울사도소전(小傳) 5	최 정 일	27
갈멜산의 대결과 하나님의 음성	조 규 철	42
야하웨를 두려워하는 자의 복	한 정 주	53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64
다정한 이름	최 제 현	66
박찬운·최병인 선생을 그리워하며	김 성 기	75
이런 일 저런 일	편 집 실	79

성서신애사

전국 봄 집회를 앞두고

그동안 겨울과 여름에 하던 무교회 전국집회를 처음으로 집회를 봄과 가을로 바꾸어 열게 되었다. 장소도 여러분의 건의가 있어 풀무 학생들의 참여를 기도하며, 홍성에 있는 문당 환경농업 마을에서 하기로 했다. 숙소와 강의장소를 최근 완전하게 리모델링하여 최상의 시설이었다. 게다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를 동반하는 젊은 부부가 성서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우리가 전국집회를 이어가는 목적은 두 가지라 생각한다.

하나는 각자의 성서공부를 발표하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독립적 신앙의 길이 올바른지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조직에 속해있지 않은 무교회인의 특성상 늘 진리의 바른 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이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믿음을 복돋우며,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다. 그래서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밥을 같이 먹고, 한방에서 잠을 자는 이 1박 2일을 기다리고 기다린다. 나이 드신 분께는 몸도 불편하고, 오고 가는 길도 번거롭고, 잠자리도 몹시 불편하시리라. 그러나 신앙 동지와의 만남과 사랑이 그리워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이번 집회는 11명의 강사님이 40분씩 강의를 하실 예정이다. 계획표를 본 우리 가족들조차 무슨 수험생 시간표냐고, 왜 그리 욕심이 많냐고 놀라워했다. 하나라도 더 좋은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좀 힘드실 테지만 주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시간 순삭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홍해의 기적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일만 남았다(손현섭).

Το ΚΑΤΑ ΜΑΤΘΑΙΟΝ ΑΓΙΟΝ ΕΥΑΓΓΕΛΙΟΝ

<맛다이오스에 의해(기록한) 기록한 복음>

(일명 :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록한 복된 소식)

마 27:35-66

전 준 덕

35절 : σταυρώσαντες δὲ αὐτὸν, διεμερίσαντο τὰ ἱμάτια αὐτοῦ, β
άλλοντες κλῆρον· ἵνα πληρωθῆ τὸ ῥηθὲν ὑπὸ τοῦ προφήτου, Διευ
ερίσαντο τὰ ἱμάτιά μου ἑαυτοῖς, καὶ ἐπὶ τὸν ἱματισμὸν μου ἔβαλο
ν κλῆρον.

사역 : 이제 이에수스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저들은 그분의 옷들
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곧 저들이 내 옷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졌으며 또한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선지자로 인하
여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시22:18).

주) 1. σταυρώσαντες : σταυρώ(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20:19절 참조).

2. διεμερίσαντο : διαμερίζω(διά+μερίζω의 합성동사) (나누다, 분배
하다, 가르다, 분리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태, 직설법, 복수, 3인칭.

3. κλῆρον : κλῆρος(분깃, 몫, 제비뽑아, 얻는 것, 몫을 결정 짓는 것,
제비)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대격.

4. ἱματισμὸν : ἱματισμός(옷, 의복, 복장, 옷차림)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대격.

36절 : καὶ καθήμενοι ἐτήρουν αὐτὸν ἐκεῖ.

사역 : 그리고 저들은 앉아서 그곳에 계신 그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 1. ἐτήρουν ; τηρέω(단축동사)의 미완,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

칭과 복수 3인칭(본절은 복수, 3인칭).(19:17절 참조)

37절 : καὶ ἐπέθηκαν ἐπάνω τῆς κεφαλῆς αὐτοῦ τὴν αἰτίαν αὐτοῦ γεγραμμένη, Οὗτός ἐστιν Ἰησοῦς ὁ βασιλεὺς τῶν Ἰουδαίων.

사역 : 또 그분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이우다이아 왕 이에수스이다” 라고 쓰인 그의 죄패를 붙였습니다.

주) 1. ἐπάνω(ἐπί+ἄνω의 합성어)(부) : (위에, 위로, 그 이상)

2. αἰτίαν : (19:3절 참조)

3. γεγραμμένη : γράφω의 완료, 수동태, 분사, 여성, 단수, 주격(2:5절 참조).

38절 : Τότε σταυροῦνται σὺν αὐτῷ δύο λησταί, εἷς ἐκ δεξιῶν καὶ εἷς ἐξ ἐυνόμων.

사역 :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한 강도는 오른쪽에, 또 한 강도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주) 1. σταυροῦνται : σταυρώ(단축동사)의 현재, 중(수), 직설법, 복수, 3인칭(20:19절 참조).

2. λησταί : ληστής의 복수, 주격(21:13절 참조).

39절 : Οἱ δὲ παραπορευόμενοι ἐβλασφήμουν αὐτὸν, κινουῦντες τὰς κεφαλὰς αὐτῶν.

사역 : 이제 저들이 예수님의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주) 1. παραπορευόμενοι : παραπορεύομαι(παρά+πορεύομαι의 합성동사) (걸을 지나가다, 통과하다, 지나서 가다)라는 동사의 현재, 중(수), 분사, 남성, 복수, 주격.

2. ἐβλασφήμουν : βλασφημέω(단축동사)의 미완, 능동태, 직설법, 복

수, 3인칭(9:3절 참조).

3. κινούντες : κιν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23:4절 참조).

40절 : καὶ λέγοντες, Ὁ καταλύων τὸν ναὸν καὶ ἐν τρισὶν ἡμέραις οἰκοδομῶν, σῶσον σεαυτὸν, εἰ υἱὸς εἶ τοῦ Θεοῦ, (καὶ) κατάβηθι ἀπὸ τοῦ σταυροῦ.

사역 : 그리고 저들은 계속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삼일 안에 짓는다고 큰 소리치던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주) 1. καταλύων : καταλύω(κατά+λύω의 합성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5:17절 참조).

2. κατάβηθι : καταβαίνω(κατά+βαίνω의 합성동사)의 제2과, 능동태, 명령법, 단수, 2인칭(3:16절 참조).

41절 : Ὁμοίως δὲ καὶ οἱ ἀρχιερεῖς ἐμπαίζοντες μετὰ τῶν γραμματέων καὶ πρεσβυτέρων ἔλεγον,

사역 :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연속 말했습니다.

주) 1. ἐμπαίζοντες : ἐμπαίζω(ἐν+παίζω의 합성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2:16절 참조).

42절 : Ἄλλους ἔσωσεν, ἑαυτὸν οὐ δύναται σῶσαι. εἰ βασιλεὺς Ἰσραήλ ἐστίν, καταβάτω νῦν ἀπὸ τοῦ σταυροῦ, καὶ πιστεύσομεν αὐτῷ.(ἐπ' αὐτόν.)

사역 : 저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건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만.

만일 이스라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렴.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다.

주) 1. ἔσωσεν : σώζω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1:21절 참조).

2. πιστεύσομεν : πιστεύω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 (18:13절 참조).

43절 : πέποιθεν ἐπὶ τὸν θεόν· ῥυσάσθω νῦν αὐτόν, εἰ θέλει αὐτόν, εἶπε γὰρ, Ὅτι θεοῦ εἰμι υἱός.

사역 : 저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시면 지금 저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놈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말했거든요.

주) 1. πέποιθεν : πείθω의 제2완료,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7:20절 참조).

2. ῥυσάσθω : ῥύομαι(구원하다, 구출하다, 건져내다, 보존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태, 명령법, 단수, 3인칭.

44절 : Τὸ δὲ αὐτὸ καὶ οἱ λησταιὶ οἱ συσταυρωθέντες (σὺν) αὐτῷ ὠνείδιζον αὐτῷ.(αὐτόν.)

사역 :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분을 향해 연속 욕하고 있었습니다.

주) 1. ὠνείδιζον : ὀνειδίζω(비난하다, 책망하다, 욕하다, 모욕하다)라는 동사의 미완,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과, 복수, 3인칭(본절은 복수, 3인칭).

45절 : Ἀπὸ δὲ ἕκτης ὥρας σκότος ἐγένετο ἐπὶ πάσαν τὴν γῆν ἔ

ως ὥρας ἐνάτης.(ἐνάτης.)

사역 : 그런데 제 육시부터 온 지면에 어두움이 시작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주) 1. ἑκτης : ἕκτος(여섯, 여섯째)의 여성, 단수, 소유격.

2. ἐνάτης : ἑννατος(아홉, 아홉째)의 여성, 단수, 소유격.

46절 : περι δὲ τὴν ἐνάτην(ἐνάτην) ὥραν ἀνεβόησεν ὁ Ἰησοῦς φωνῇ μεγάλῃ, λέγων, Ἥλί, Ἥλί, λαμὰ(λέμα) σαβαχθαní: τοῦτ' ἔστι, Θεέ μου, Θεέ μου, ἵνατί με ἐγκατέλιπες;

사역 : 이제, 제 구시쯤 되자 예수님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주) 1. ἀνεβόησεν : ἀνεβοάω(ἀνά+βοά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부르짖는다, 외치다, 크게 외치다)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 ἡλί : (나의 하나님)

3. λαμὰ : (어찌하여? 왜?)

4. σαβαχθαní : (당신은 나를 버렸다)

5. Θεέ : Θεός의 단수, 호격.

6. ἵνατί(부) :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7. ἐγκατέλιπες : ἐγκαταλείπω(ἐν+καταλείπω=κατά+λείπω의 이중 합성동사)(버리다, 남기다, 포기하다, 내버리다, 버려두다, 머물게 하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2인칭.

47절 : Τινὲς δὲ τῶν ἐκεῖ ἐστώτων(ἐστικόντων) ἀκούσαντες, ἔλεγον, ὅτι Ἥλίαν φωνεῖ οὗτος.

사역 :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이

자가 헬리아스를 부른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주) 1. ἐσώτων : ἴστημι의 완료,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4:5 절 참조).

48절 : καὶ εὐθέως δραμῶν εἷς ἐξ αὐτῶν καὶ λαβῶν σπόγγον, πλῆσας τε ὄξους καὶ περιθειὲς καλάμῳ, ἐπότιζεν αὐτόν·

사역 :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즉시 뛰어가서 해면을 취한 후 신 포도주를 채우고서 갈대에 꿰어 그분에게 마시게 하고 또 마시게 했습니다.

주) 1. δραμῶν: τρέχω(달리다, 뛰다, 뛰어가다, 경주하다, 힘써서 나아가다, 빨리 나아가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2. σπόγγον : σπόγγος(해면, 갯솜)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대격.

3. πλῆσας : πίμπλημι(채우다, 성취하다, (수) 이루어지다, 성취되다, 마침내 되다, 드디어 되다, 만족케 되다)라는 ~μι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4. περιθειὲς : περιτίθημι(περί+τίθημι의 합성동사)(주위에 두다, 둘레에 놓다, 둘러치다, 둘러 씌우다, (옷을) 입히다, 부여하다, 주다)라는 μι동사의 제2,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5. καλάμῳ : κάλαμος의 단수, 여격(11:7절 참조).

6. ἐπότιζεν : ποτίζω(마시게 하다, 마실 것을 주다, 물을 주다)라는 동사의 미완,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49절 : οἱ δὲ λοιποὶ ἔλεγον, Ἄφες, ἴδωμεν εἰ ἔρχεται Ἡλίας σώσων αὐτόν.

사역 : 그러자 남은 사람들은 여러번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시오. (정말) 헬리아스가 와서 저자를 구원 한가를 우리가 지켜봅시다.”

50절 : Ὁ δὲ Ἰησοῦς πάλιν κράξας φωνῆ μεγάλῃ ἀφῆκε τὸ πνεῦμα.

사역 : 이제 이에수스님은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주) 1. κράξας : κράζω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8:29절 참조)

51절 : καὶ ἰδοῦ, τὸ καταπέτασμα τοῦ ναοῦ ἐσχίσθη εἰς δύο ἀπὸ(ἀπ') ἄνωθεν ἕως κάτω(εἰς δύο) καὶ ἡ γῆ ἐσειέθη, καὶ αἱ πέτραι ἐσχίσθησαν,

사역 : 그런데 보십시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요동치며 바위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주) 1. καταπέτασμα(κάτα+πετάομαι의 합성어) : (휘장, 가리는 것)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2. ἐσχίσθη : σχίζω(찢다, 쪼개다, 나누다, 가르다, 조각을 내다 (중) 열리다 (수) 갈라지다, 쪼개지다, 분열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3. ἐσειέθη : σειώ(흔들다, 뒤흔들다, 떨게 하다, 들끓게 하다, 요동케 하다, 진동시키다,(수) 흔들리다, 요동하다, 떨다, 끓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4. ἐσχίσθησαν : σχίζω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27:51절 참조).

52절 : καὶ τὰ μνημεῖα ἀνεώχθησαν· καὶ πολλὰ σώματα τῶν κεκοιμημένων ἁγίων ἠγέρθη, (ἠγέρθησαν.)

사역 :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의 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 1. κεκοιμημένων : κάμνω(비음동사) (피곤하다, 지치다, 힘이 빠지다, 앓다, 앓아서 죽게되다, 죽다)라는 동사의 완료, 중(수),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 (후반절의 주어인 πολλὰ σώματα의 중성 복수는 단수동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ἠγέρθη는 틀린 것 아님)

53절 : καὶ ἐξελθόντες ἐκ τῶν μνημείων μετὰ τὴν ἔγερσιν αὐτοῦ, εἰσῆλθον εἰς τὴν ἁγίαν πόλιν καὶ ἐνεφανίσθησαν πολλοῖς.

사역 : 그리고 이에수스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주) 1. ἔγερσιν : ἔγερσις(부활, 일어남, 깨어남)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2. ἐνεφανίσθησαν : ἐμφανίζω(ἐν+φανίζω=φαίνω의 합성동사) (나타내다, 보여주다, 보이게하다, 알게하다, 밝히다, 보고하다, 설명하다, 알리다, 고소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

54절 : Ὁ δὲ ἑκατόνταρχος καὶ οἱ μετ' αὐτοῦ τηροῦντες τὸν Ἰησοῦν, ἰδόντες τὸν σεισμόν καὶ τὰ γενόμενα, ἐφοβήθησαν σφόδρα, λέγοντες, Ἀληθῶς Θεοῦ υἱὸς ἦν οὗτος.

사역 : 그러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이에수스님을 지켜본 사람들이 지진과 되어진 것들을 보고 나서 심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주) 1. τηροῦντες : τηρ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19:17절 참조).

2. σεισμόν : σεισμός의 단수, 대격(24:7절 참조).

3. ἀληθῶς(부) : (14:33절 참조)

55절 : Ἦσαν δὲ ἐκεῖ γυναῖκες πολλαὶ ἀπὸ μακρόθεν θεωροῦσαι, αἵτινες ἠκολούθησαν τῷ Ἰησοῦ ἀπὸ τῆς Γαλιλαίας, διακονοῦσαι αὐτῷ·

사역 :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연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아에서부터 따라왔던 것입니다.

주) 1. θεωροῦσαι : θεωρέω(단축동사) (보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감지하다, 구경하다, 알다, 깨닫다, 생각하다, 발견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여성, 복수, 주격.

2. διακονοῦσαι : διακονέω(δία+κον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여성, 복수, 주격(20:28절 참조).

56절 : ἐν αἷς ἦν Μαρία ἡ Μαγδαληνή, καὶ Μαρία ἡ τοῦ Ἰακώβου καὶ Ἰωσῆ(Ἰωσήφ) μήτηρ, καὶ ἡ μήτηρ τῶν υἱῶν Ζεβεδαίου.

사역 : 많은 여인들 중에는 막달레네 마리아와 또 야코보스와 이오세스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제베다이오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주) 1. αἷς : ὅς(관계, 대)의 여성, 복수, 여격(2:9절 참조).

57절 : Ὀψίας δὲ γενομένης ἦλθεν ἄνθρωπος πλούσιος ἀπὸ Ἀριμαθαίας, τοῦνομα Ἰωσήφ, ὃς καὶ αὐτὸς ἐμαθήτευσεν(ἐμαθητεύθη) τῷ Ἰησοῦ·

사역 : 그런데 저녁 때에 아리마다이아에서 돈 많은 한 부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이오셉이라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 1. ὀψίας : (늦은 저녁)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단수, 주격(8:16절 참조).

2. πλούσιος : (19:23절 참조)

3. τοῦνομα(το+ὄνομα의 합성어) : (그 이름, (대격) : 그 이름으로)

4. ἐμαθήτευσεν : μαθητεύω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13:52절 참조).

58절 : οὗτος προσελθὼν τῷ Πιλάτῳ ἠτήσατο τὸ σῶμα τοῦ Ἰησοῦ. τότε ὁ Πιλάτος ἐκέλευσεν ἀποδοθῆναι τὸ σῶμα.

사역 : 이 사람이 필라토스에게 가서 이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필라토스는 시체를 넘겨주도록 명했습니다.

주) 1. ἠτήσατο : αἰτ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5:42절 참조).

2. ἐκέλευσεν : (8:18절 참조)

59절 : καὶ λαβὼν τὸ σῶμα ὁ Ἰωσήφ ἐνετύλιξεν αὐτὸ(έν) σινδόνι καθαρᾷ,

사역 : 그래서 이오셉은 (이예수스의) 시체를 들고 가서 깨끗한 삼베로 시체를 싸았습니다.

주) 1. ἐνετύλιξεν : ἐντυλίσσω(έν+τυλίσσω의 합성동사) (싸다, 감싸다, 봉하다, 접다, 말다, 개다)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3인칭.

2. σινδόνι : σινδών(삼베, 고운베, 고운 삼베, 시체를 싸는 천)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여격.

3. καθαρᾷ : καθαρός의 여성, 단수, 여격(5:8절 참조).

60절 : καὶ ἔθηκεν αὐτὸ ἐν τῷ καινῷ αὐτοῦ μνημείῳ ὃ ἐλατόμησεν ἐν τῇ πέτρᾳ καὶ προσκυλίσας λίθον μέγαν τῇ θύρᾳ τοῦ μνημείου, ἀπήλθεν.

사역 : 그리고 그는 바위를 쪼개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이예수스의)

시체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무덤 문 앞에 굴러 막아 놓고 돌아갔습니다.

주) 1. ἐλατόμησεν : λατομέω(단축동사) (돌을 깨다, 돌을 쪼개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 προσκυλίσας : προσκυλίω(πρός+κυλίω의 합성동사) (굴러대다, 굴리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61절 : ἦν δὲ ἐκεῖ Μαριάμ(Μαριὰμ) ἡ Μαγδαληνὴ καὶ ἡ ἄλλη Μαρία, καθήμεναι ἀπέναντι τοῦ τάφου.

사역 : 그런데 그곳에 막달레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 1. τάφου : τάφος의 단수, 소유격(23:27절 참조).

62절 : Τῇ δὲ ἐπαύριον, ἣτις ἐστὶν μετὰ τὴν παρασκευὴν, συνήχθησα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πρὸς Πιλάτον,

사역 : 그리고 이튿날에 곧 그날은 예비일 다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파리사이오스인들이 필라토스와 함께 모여

주) 1. ἐπαύριον(부) : (내일, 이튿날 다음날)

2. τῇ ἐπαύριον : (이튿날에의 숙어)

3. παρασκευὴν : παρασκευή(παρά+σκευή의 합성어) (준비, 예비)의 제1 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4. ἣτις : ὅστις(ὄς+τις의 합성어)의 여성, 단수, 주격(2:6절 참조).

63절 : λέγοντες, Κύριε, ἐμνήσθημεν ὅτι ἐκεῖνος ὁ πλάνος εἶπεν ἐπι ζῶν, Μετὰ τρεῖς ἡμέρας ἐγείρομαι.

사역 : 저들이(필라토스에게) 말하기를 주여! 저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에 “내가 (죽으면) 삼일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 1. ἐμνήσθημεν : μιμνήσκω의 제1과, 수동태, 직설법, 복수, 1인칭 (26:75절 참조)

2. πλάνος : (그릇 인도하다, 잘못 인도하다, 길을 잃게 하는, 속이는, 흘리는, 유혹하는, 방황케 하는)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단수, 주격. (명) ὁ πλάνος : 속이는 자, 사기꾼.

3. ἐγείρομαι : ἐγείρω(유음동사)의 현재, 중(수), 직설법, 단수, 1인칭 (2:13절 참조).

64절 : κέλευσον οὖν ἀσφαλισθῆναι τὸν τάφον ἕως τῆς τρίτης ἡμέρας· μήποτε ἐλθόντες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νυκτὸς κλέψωσιν αὐτὸν, καὶ εἴπωσι τῷ λαῷ, Ἥγέρθη ἀπὸ τῶν νεκρῶν· καὶ ἔσται ἡ ἐσχάτη πλάνη χειρῶν τῆς πρώτης.

사역 : 그러므로 삼일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하소서 혹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서 백성에게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소”하고 선전하면 마지막 유혹이(오히려) 처음 유혹보다 더 클 수 있나이다.

주) 1. ἀσφαλισθῆναι : ἀσφαλιζῶ(지키다, 굳게하다, 안전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태, 부정사.

2. κλέψωσιν : κλέπτω 제1과, 능동태, 가정법, 복수, 3인칭(6:19절).

3. νεκρῶν : νεκρός의 남성, 복수, 소유격(8:22절 참조)

4. πλάνη : (배회, 방황, 잘못, 미혹, 속임, 사기, 이탈, 범죄, 유혹)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5. ἐσχάτη : ἔσχατος의 여성, 단수, 주격(5:26절 참조).

65절 : Ἐφη δὲ αὐτοῖς ὁ Πιλάτος, Ἔχετε κουστωδῖαν· ὑπάγετε, ἀσφαλίσασθε ὡς οἴδατε.

사역 : 그러자 필라토스는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있소” 가서 깨닫는 대로 굳게 지키시오.

주) 1. κουστωδῖαν : κουστωδία(호위, 수위, 호위병, 호위자)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2. ἀσφαλίσασθε : ἀσφαλίζω의 제1과, 중간태, 명령법, 복수, 2인칭(27:64절 참조).

66절 : Οἱ δὲ παρευθέντες ἠσφαλίσαντο τὸν τάφον σφραγίσαντες τὸν λίθον, μετὰ τῆς κουστωδίας.

사역 : 그래서 저들은 호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한 후에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주) 1. ἠσφαλίσαντο : ἀσφαλίζω의 제1과, 중간태, 직설법, 복수, 3인칭(27:64절 참조).

2. σφραγίσαντες : σφραγίζω(인치다, 봉인하다, 인봉하다, 표식을 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3. κουστωδίας : κουστωδία의 단수, 소유격과 복수, 대격(본절은 단수, 소유격) (27:65절 참조).

【4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10쪽22줄	~풀어주기를 바라니까?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14쪽8줄	ἔτυπον : τυπιω의	ἔτυπον : τύπτω의
16쪽22줄	ὄξος(οἶνο)	ὄξος(οἶνον)

에베소서를 시작하며

손 현 섭

1. 시작

나의 인생을 통틀어 성서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나는 신앙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았던 학창 시절 주제님께 로마서 공부라는 이름을 붙여 친구들과 돌려보는 작은 잡지를 시작했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자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읽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지금 에베소서를 시작한다. 얼마 동안 보게 될지 모르나 성령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다. 이 공부를 위해 여러 책을 보는 동안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엡1:17-19)

에베소서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도 대부분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요 절정이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었다. 기독교의 정제(精製)된 진수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한 개요라는 것이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신비와

부요함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높이고 거룩하게 표현한 서신이라(로이드 존스) 하겠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바란다.

2.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주제는,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이다.” 이 서신의 첫마디로도 알 수 있다. 성서는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계시이다.

우리의 고통은 항상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서를 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성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진노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귀결되니 참으로 인생으로서는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음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다. 갈라디아서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진술한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점이 있다. 우리 역시 선택하여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두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는 이것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드러내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 비밀은 이방인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후사가 된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알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모든 것의 일어나는 때를 정하신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준다. 비밀이라는 말은 에베소서에서 여섯 번이나 등장하는 만큼 깊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 비밀을 믿는 자에게 밝히 드러내신다는 사실도 말하고 있어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더욱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심을 갖고 알고자 애쓰는 건 매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신자들의 순수한 열심히 믿음에 진보와 성장을 가져온다. 누구나 성서를 읽다가, 또는 신앙의 글을 읽거나 듣다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리를 문득 깨닫는 경험을 한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겠는가?

비밀과 함께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은혜이다. 이 짧은 서신에 열세 번이나 되풀이하여 쓰고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 바란다’는 인사에서부터 죄인을 위해 성취하신 구원과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복하여 강조한다.

3. 은혜.

그렇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이야기한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얼마나 부요한지 알게 하고 싶었던 사도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이 서신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존재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때문이다. 바울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이기에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천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도, 구원도 없다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정한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어떤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 중의 한 사람으로 알고 그의 도덕적인 삶만 본받으려 신자가 된 분도 많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었다.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진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일이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인류 구원의 대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이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공훈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뜻의 비밀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성의 총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풍성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메시지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다. 예수와 관련 없는 진리나 메시지는 다 가짜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 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4. 사탄

에베소서를 읽어가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난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 문제들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때문이다. 이 세상의 신(神)이 되어버린 천사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이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가공할 힘은 사람 사이의 적대감과 곤경과 파멸을 불러온 근원이다.

현대인은 서로를 향해 적대심과 경쟁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사실 현대 뿐만이 아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죄의 결과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진 사람들의 삶에서 왔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하였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대대로 자손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최초의 혼란과 분란도 이어져 왔다.

5. 구원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주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히브리 사람 즉 유대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키워가시기 위한 역사를 기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스라엘만을 향해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도 오로지 유

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민족 밖으로 뻗어 나간다.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을 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가 아닌가.

6. 에클레시아

에베소 역시 이방이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밖으로 구원의 계획을 향하였을 때 생겨난 에클레시아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이 사라졌다. 둘로 하나를 이루셨다.

이는 가히 새로운 창조라고도 할 수 있다. 유대인 열두 지파에게만 향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에클레시아(교회, 모임, 집회)에 부여졌다.

에베소서를 공부해 가는 동안 에클레시아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 완성되어 가는 것도 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에클레시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창조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로 인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가며 살아갈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 이편에서 저편에까지, 달들이 차고 더 이상 기울지 않기까지” 왕 노릇을 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에클레시아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의 지체가 된다. 한 사람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이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의 지체라는 책임과 기쁨을 알고 서로 힘을 북돋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7. 바른 생활

바울은 이 서신 끝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윤리적으로도 바른 행실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 수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가 강조한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교훈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하나님의 말씀). 이 전신 갑주는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받을 수 있다.

8. 걱정 그리고 바람

나는 성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공적으로 발표하거나 글로 남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저 성서를 보는 게 재미있어서 참고서를 옮겨적기도 하고, 소감을 적어 왔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 요한계시록, 에베소서까지 공부해 오니 걱정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서를 읽고 있지만, 나는 사실 지식도 없고 논리적으로 글을 쓸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어디에 내놓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 같은 자에게도 성서 공부를 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빌 뿐이다.

산파이신 하나님

(사 66:6~14)

연 창 호

성에서 들리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성전의 요란한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원수들을 벌하시는 소리이다.
시온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도 않고
갑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처럼 되었으니
이런 일을 듣고 본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탄생하겠으며
어떻게 한 민족이 순식간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산통을 겪는 즉시 그의 자녀들을 낳았다.
내 백성이 탄생할 때가 되었는데
네가 어찌 태를 담아 그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사 66:6~9).

○ 6절은 예언자의 말입니다. 성과 성전에서 들리는 왁자지껄한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 나는 악인의 신음소리입니다. 왁자지껄한 소리는 아우성 소리이고 요란한 소리는 울부짖는 소리로 원수를 벌하는 소리입니다. 이 모두 악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과 원수를 심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기뻐하여 부르짖는 환호성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을 벌하는 소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전혀 고통 없이 그것도 순식간에 자녀를 출산한다는 이 예언은 바빌론 포로들의 귀환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태동과 발전을 암시합니다(호크마). 나라와 민족이 한순간에

탄생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고통 없이 자녀를 순산하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고 심판합니다. 그분은 자녀에게는 축복을 부어 주고 원수에게는 심판을 내려줍니다. 자녀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자들이고, 원수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해 망령되이 주를 부르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민노라 하는 교회와 교인이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축복과 심판은 동시에 임하는데 세속의 역사마저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사야의 입장입니다. 7~9절은 하나님은 산파의 역할을 한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임신케 하고 또한 무사하게 해산케 해 줍니다.

고대에는 해산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시온이 해산 시에 고통이 오기도 전에 순식간에 해산시켜 줍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원래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위대한 산파가 되어 고통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순산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그 세계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합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씩씩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마저 그 믿음을 준 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크게 즐거워하라.**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의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할 것이다'(사66:10~11).

○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범위에는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예루살렘은 오늘의 교회이고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모인 곳은 모두 교회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예루살렘을 통해 축복 받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정신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의 악을 보고 이에 저항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악과 고통이 현존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넘치게 하고
온 세계의 재물이 너희에게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겠다.
너희가 어머니의 젖을 빨며
그 무릎에 앉아 노는 어린아이와 같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 마음이 기뻐서 원기가 왕성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 여호와가 나를 섬기는 종들을 돕고
내 원수들에게는 내가 분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사 66:12~14).

○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에게 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감화받아 그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12절의 '예루살렘의 평화'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지난날의 예루살렘은 외적에 의해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재건되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오늘날 신약 교회요 신자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가 임합니다.

14절의 '원기'는 '에셈'으로 몸의 뼈를 말하지만, 가문이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뼈가 쇠하였지만 이제 뼈가 생기를 되찾아 왕성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엡 2:5~6). 믿음을 강조하는 한국 교회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에 교만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란) 우상입니다.

바울 사도 소전(小傳) 5

최 정 일

1.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여행과 제3차 전도여행(계속) 중 <베드로 사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면박사건>

*바울 사도의 회심[시기:A.D.33년설, 35년설 또는 37년설]

*제1차 전도 여행:[시기:A.D.35-36년설 또는 A.D.44-46년설]

*제2차 전도 여행[시기:A.D.49-52년설 또는, A.D.52-54년설][집필서한: 데살로니카 전·후서]

*제3차 전도 여행[시기:A.D.52-56년설 또는, A.D.54-59년설][집필서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바울 사도의 로마연금(투옥)[시기:A.D.59-64년설 또는 A.D.62-64년설][집필서한: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로마투옥과 순교[A.D.64-66 또는 67년][집필서한:목회서신들-디모데전·후서, 디도서]

(1) 일부 학자들은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 대하여 오해하듯이, 한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오해해서 쓰고 있다.

(2) 베드로가 자신의 전도 여행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시작했는데 그는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왔다. 바나바도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의 그리스도 신자들을 방문한 뒤에 시리아의 안디옥 에클레시아에 왔다.

(3) 이 두 사람들(즉 바나바와 베드로)은 처음에는 안디옥 에클레시아의 이방인 신자들을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방문했고 그들과 같이 사적(=개인적) 식사든 (이것은 이미 베드로가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행했던 일이다), 아니면 공적인 식사에서든 함께 식사를 했다.

(4) 이 행동 방식은 물론 엄격히 보면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어긋난 것이었다. 즉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 따르면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도록 합의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의 본보기를 따라서 생각하면 베드로와 바나바는 「서로 충돌하는 요구들이 있는 경우에는 형제적 친교를 할 도덕적 의무는 의식(儀式)률의 준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마12:1-8]과 [마15:1-20]의 예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이다. [마12:1-8]에는 이렇게 있다: 「(1절)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2절).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저것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말했다(3절).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6절) 잘 들어라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7절).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8절). 인자(=사람의 아들)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마15:1-20]에도 이렇게 있다: 「(1절)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2절)“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하고 물었다. (7절)이 위선자들이 이사야는 바로 너희를 두고 이렇게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5) 결국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그가 코르넬리우스에게 전도할 때 위에서 받은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행10:10절 이하]에는 이렇게 있다: 「(10절) 베드로는 무아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네 귀통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12절) 그 속에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이 들어 있었다. (13절) 그 때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14절) 베드로가 “절대로 안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자.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마라”하는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6) 바나바는 그의 소아시아 전도 이래로 레위 율법의 준수보다도 이방인과의 친교를 더 우선시하는 데 익숙해 있었음에 틀림없다.

(7) 바로 그 때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몇 명의 신자들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도착한 것이다. 이 신자들의 사명은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의 행동이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서의 타협 내용에 일치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데 있었다.

(8) 이제 예루살렘 사도 회의의 합의문서의 엄격한 해석에 따르면, 태생이 유대인들인 베드로 사도와 바나바는 잘못을 범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서 파견된 신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취한 행동의 시정을 요구받은 것이다. 우리는 <복음서>들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 사도의 솔직하고 다혈질적인 기질을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자신의 조카인 마가에게 보여준, 바나바의 소탈하면서도 응석을 받아 주는 성격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파견 신자들의 경고에 겁을 집어먹은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더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9)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 회의가 채택한 타협의 불충분함의 명백한 증거를 본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타협을 임시방편으로 수용했다 [개행 16:4-41], 곧 그것을 중시하게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행 16:4-41]에 이렇게 있다: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주님의 은총을 비는 성도들의 인사를 받으며 안디옥을 떠났다 [=제2차 전도여행]. (41절) 그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모든 에클레시아에 힘을 북돋아 주었다. (16절) 그 뒤 바울은 더베에 들렀다가 리스트라로 갔다. (4절)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전해주며 지키라고 했다.」

(10) 이 합의는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을 모세 율법에서 해방시켰지만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은 계속 율법의 명에 아래 두는 것이었다. 이 합의는 전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에클레시아들 [예컨대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에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실행가능하였다. 그러나 시리아 지역의 에클레시아들처럼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과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에클레시아들에서는 이 합의의 엄격한 준수가 실시 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종류의 구성원들의 외적 분리와 에클레시아의 분열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11) 이런 에클레시아의 분열을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야고보가 진실로 원했을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① 야고보는 비록 혈연적으로는 주 예수의 친 형제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혈연관계가 결코 야고보의 무오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또한 ② 비록 주 예수가 야고보의 회심을 위하여 야고보에게 부활 후 나타나셨지만 [고전15:7],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주 예수가 그 형제 야고보에게 그 에클레시아의 통솔을 맡겼다고 볼 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고전15:4-8]에는 이렇게 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7절)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 주의 형제 야고보는 물론 예루살렘 에클레시아의 수장이 되었으나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에클레시아에 유대인 그리스도 신자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 그리스도 신자들이 자신들이 위임받은 권한을 일탈해서 이 사건을 야기했을 가능성도 많다.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의 자유를 인정받은 바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반격의 계기가 도래한 것이다. 사도바울의 반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에클레시아에서 해 온 행동들과 이제 바뀐 베드로 사도의 행동 간의 불일치성을 주장한다.

(13) 베드로 사도는 그동안 수 주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을 강요해서 「만일 당신들이 나와 계속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멍에 아래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실제적 귀결이야말로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어긋나는 결과이다. 이제 바울 사도는 결국 이 계기를 활용해서 자신이 받았던 계시의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펼쳐 나간다.

(14) 즉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의 폐지는 그 원칙에 있어 올바로 이해할 때 십자가의 사실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의 표명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다. 바울 사도는 [갈2:19-20]에서 이렇게 말한다: 「(19절)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5) 바우어와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르낭은 「이

갈등은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간의 원칙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증언한다」고 본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말들은 그 정반대의 사실을 나타낸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것 즉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면박준다. 그러나 이 면박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에 대한 확신은 베드로 사도의 확신과 일치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점은 바나바 사도에 대해서도 같다. 즉 바울 사도는 바나바 사도가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위선을 저지르고 있다라고만 면박준 것일 뿐이다. [갈2:12-14]에는 이렇게 있다: 「(12절) 게바의 책망받을 일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게바가 이방인 그리스도 신자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자 게바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갔습니다. (13절) 나머지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하며 게바와 함께 물러나갔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휩쓸려서 가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14절) 나는 그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인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같이 사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16)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돌발 사건에 의하여 「바울 사도가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듯이 베드로 사도도 또한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신 자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결론이 오히려 확립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돌발사건을 그토록 상세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에클레시아의 방해자들(=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조사자들)은 「자신들은 12사도의 모범과 권위에 근거한다」라고 우겨댄 것이다.

2. 바울 사도의 제3차 전도여행

(1) 베드로 사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면박 사건 뒤에 바울 사도는 제3차 전도 여행에 들어갔다. 이 때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가졌던 목적 즉 소아시아의 과학상, 상업상 대도시의 심장(=수도)인 에베소에 에클레시아를 세운다는 목적을 실현시켰다. 이 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주(州)를 통과했다.

(2) 바울 사도는 이미 유대주의적 거짓 형제들의 유혹에 의하여 어지럽혀져 있었던 이 갈라디아주(州)에 에클레시아를 세웠다. 이 유대주의적 거짓 형제들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왔었던 것임이 분명하다. 이 거짓 형제들은 숙련된 솜씨로 할레와 그 밖의 모세 의식물들을 갈라디아주(州)의 그리스도 신자들 사이에 도입하려고 시도했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쳐 바울 사도는 이 영적 폭풍을 가라앉혔다. 누가 복음사가는 [행18:23]에서 이렇게 말한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제3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방과 피리기아 지방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을 격려했다. [=굳건하게 했다]

(3) 그런데 ‘격려했다’는 이 단어[=스테리존=στυπίζω:confirm]야말로 갈라디아 지방과 피리기아 지방의 그리스도 신자들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준다. 에베소에서는 바울 사도의 진실한 친구들이자 동역자들인 아퀼라[=아굴라]와 그의 아내인 브리스킬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의 끝무렵에 고린도를 떠나서 소아시아에 정착해서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행 18:18-21]에는 이렇게 있다: 「(18절)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날 더 머물러 있다가 성도들과 작별하고 브리스킬라와 아퀼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19절) 일행과 함께 에베소에 이른 바울은 두 사람과 헤어졌다. (21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찾아오겠소”하고 여러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남긴 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4)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보낸 2-3년 간은 그의 전도활동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 기간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뒤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전도 활동과 한 짝을 이룬다. 복음사가 누가는 [행19:11-20]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11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시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12절)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나고 악령들이 쫓겨나갔다. (15절) 그 때 마귀 들린 사람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잘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16절) 덤벼들어 스쿠아[=스게아]라는 유대인 대제사장의 아들 일곱 형제들을 모조리 때려눕혔다. 그들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알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 (17절)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퍼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다. (20절) 이리하여 주의 말씀은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떨쳤다」

(5) 에베소를 비롯한 갈라디아주(州)와 프리기아주(州)의 번창하던 에클레시아들은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계1:10-20]에는 이렇게 있다: 「(10절)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절) 그 음성은 나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베소, 스미르내[=서머내], 베르가모[=버가모], 티아디라[=두아디라], 사르디스[=사데], 필라델피아[=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오디게아] 등 일곱 에클레시아에 보내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돌아서서 보았더니 황금 촛대가 일곱 개 있었고, (13절) 그 일곱 촛대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인자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15절) 그분의 음성은 큰 물 소리 같았습니다. (16절) 오른 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20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에클레시아의 천사들이고 일곱 촛대는 곧 일곱 에클레시아이다.” 즉 에베소, 밀레투스, 스미르나, 라오디케아, 히에라폴리스, 콜로새, 티아티라, 필라델피아, 사르디스, 페르가모스 그 밖의 에클레시아들이다. 이들은 기원 2세기의 문서들에서 언급되는 에클레시아들이다. 이 에클레시아

들이 소아시아, 갈라디아주(州), 프리기아주(州)에 있던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주민들 한복판에서 나타난 것이다.

(6) 이 시기의 바울 사도의 전도 역사는 성령의 권능을 잘 보여준다. 이 수년간의 전도 활동 끝무렵에 우상숭배적 이교(異敎)신앙은 자신들이 이 지역에서 심각하게 그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금세공상[=은장색] 데메트리우스에 의하여 선동된 ‘큰 소동’ 사건이다: [행19:21-41]에는 이렇게 있다: 「(23절) 이 무렵에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교 때문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이가 은으로 여신 아르데미스[=아데미]의 신당 모형들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큰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는데, (25절) 하루는 자기 직공들과 동업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26절)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神)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27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사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28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소란하여 “에베소의 여신 아르데미스 만세!”하고 아우성쳤다. (29절) 온 도시가 소란해졌다」

(7)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이 풍성한 전도 활동의 시기는 동시에 그의 적들인 유대주의적 거짓 형제들과의 불화와 논쟁의 절정기이기도 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주(州)를 지나간 뒤에 바울 사도의 적들은 이 지역에서의 그들의 노력을 배가시켰다. 물론 바울 사도의 적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았다. 바울 사도의 적들은 심지어 바울 사도가 이방 세계를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는 것까지도 그것이 모세의 율법주의에 도움이 된다면(즉 도움이 된다는 조건으로)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즉 바울 사도의 적들이 보기에는 율법이야말로 진정한 목표이고 복음은 그 수단에 불과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전도(顛倒)된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놓는 것이 된다.

(8) 바울 사도는 비록 바울 사도의 적들이 내놓은 타협안이 그리스도의 전파와 적대적 유대인을 화해시키는 데 매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단호히 분개하며 거부했다. 바울 사도의 적들은 그들이 제시한 타협안으로 바울 사도를 굴복시킬 수 없자 바울 사도의 사도직의 권위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우선 바울 사도의 적들은 바울 사도를 개인적으로 헐뜯었다. 즉「바울 사도는 원래 12사도의 제자인데 이제 와서는 그 스승들을 발로 차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9) 바울 사도의 적들의 이 개인적 헐뜯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잘 나타나 있다. [갈1:1-19; 2:1-7]에는 이렇게 있다: <1장>「(1절)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직을 사람에게서나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시다. (11절) 형제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12절)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15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기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16절) 당신의 아드님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드님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시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시다. (18절) 그리고 삼 년 후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보름을 지냈습시다. (19절) 그 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지 않았습시다.」

<2장> 「(1절) 그리고 십사 년 뒤에 나는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시다. (5절)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려고 우리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마치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 다음으로 바울 사도의 적들은 「율법의 영원성」을 주장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모세 율법의 일시적이고 순전히 예비적인 성격을 보여줌으로써 뒤엎는 주장이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는 이렇게 있다: <3장> 「(2절)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3절) 여러분은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지금 와서 인간의 힘으로 마치려드는 것입니까? (5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6절)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창15:6)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성서는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에게 “(창12:3) 너로 말미암아 만백성이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미리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10절) 성서에 “(신27:26)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서에도 “(합2:4)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레18:5)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지킴으로 산다”

고 말합니다. (13절) (신21:23)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다.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14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맺어주신 계약이 사백삼십 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해서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만일 율법을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19절)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21절)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서는 ‘온 세상이 죄에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절)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았으며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24절)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몽학선생=초등교사=가정교사)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25절) 이렇게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4장>「(4절)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5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6절)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드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인 것입니다. (9절)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신데 왜 또 다시 그 무력하고 천한 초등학문(자연숭배)으로 되돌아가서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19절)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22절) 율법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낳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부인의 몸에서 낳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로 한 말인데 그 두 여자는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서 노예가 될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하갈입니다. (25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그 주민들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26절)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 어머니입니다. (28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30절) 성서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21:10)여종과 그의 자식을 내어쫓아라 종의 자식은 결코 본 자식과 같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31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몸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몸에서 난 자녀입니다」

(11) 끝으로 바울 사도의 적들은 「모든 율법에서 끊어진 가르침은 그 신봉자들의 도덕적 삶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주제이다. 즉 이 두 장(章)들은 우리의 성화(聖化)가 (성화는 칭의의 완성인데) 어떻게 율법의 금지에 복종함으로써 실현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역사(=작용)」에 의하여 실현되는

지를 보여준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는 이렇게 있다:

<5장>「(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2절)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3절)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4절)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졌고 은총에서 벗어났습니다. (5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11절)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의 욕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14절) 모든 율법은 “(레19:18)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하신 한 마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16절) 육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17절) 육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욕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18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19절) 욕정이 빛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20절)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21절)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등입니다. (22절)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23절)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24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을 그 정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25절) 성령께서 우리

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6장>「(1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2절)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7절)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8절) 자기 육에 심는 사람은 육에게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9절)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기회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13절)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14절) 그러나 나에게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게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15절)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17절) 내 몸에는 예수의 낙인[=흔적]이 찍혀 있습니다. (18절)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리기를 빕니다. 아멘」

(12)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한 후 곧 쓴 것이다. [갈1:6]에는 이렇게 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전16:1]의 기사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주(州)에서 ①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와 ② 복음의 우위를 재확립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고전16:1]에는 이렇게 있다: 「이제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갈라디아주(州)의 여러 에클레시아들에 지시한 것을 여러분도 따르십시오.」

갈멜산의 대결과 하나님의 음성

조 규 철

성경 ; 왕상18:36~39(공동번역)

36 제사드리는 시간이 되어 예언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외쳤다. “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좇아 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38 그러자 야훼의 불길이 내려 와 제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괴어 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 버렸다.

39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 왕상19:11~12(공동번역)

11 다시 음성이 들려 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쿠데타로 집권하였습니다. 아합은 아마도 디르샤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합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오

므리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므리는 왕이 되자 얼마를 지난 후에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오므리가 죽자 아합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왕처럼 정치를 잘 하여서 오므리왕조를 굳건하게 하였고 22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 이전의 두 왕조, 여로보암 왕조와 바아사 왕조가 그들의 아들 대에, 그것도 단 2년 만에 각각 끝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아합 때 까지 여리고 성읍은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마주한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온 백성이 여리고 성 밖을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돌고, 7일 째에는 성을 일곱 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는 순간 온 백성이 ‘와~’하고 함성을 지르자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정복한 후에 여리고성의 재건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재건하는 자는 재건을 시작하는 기초를 놓을 때에 장남이 죽고, 재건을 끝내는 성문을 달 때에 막내아들이 죽으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지 500년 후, 바로 아합 왕 때에 히엘(하나님은 살아계신다)이라는 사람이 성을 재건하다가 시작할 때와 끝 낼 때 각각 한 아들씩, 두 아들을 잃었다고 합니다(왕상16:34). 여리고성의 재건은 히엘이 독자적으로 한 일은 아닐 것이고, 아합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건된 여리고성은 교통의 요지였으므로 아합이 유용하게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아합은 전통적인 야훼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에 야훼의 이름을 넣었다는 점(아하시야-여호와의 소

유하심, 여호람(요람)-여호와와는 존귀하시다), 그리고 왕궁 내에 신실한 야훼신앙의 소유자인 오바다를 그의 최측근 궁내대신으로 둔 점, 또 선지자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하고,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찢린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왕의 뜻에 따라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시돈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국제결혼을 합니다. 시돈은 해상 무역으로 부유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정략결혼이기는 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아합도 이세벨과의 결혼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외국인 아내인 이세벨의 종교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아합도 그 신전에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아합은 스스로 야훼 신앙도 인정하고, 바알 신앙도 인정하는 양다리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의 통치 어느 시기에 아내 이세벨에게 국가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전권을 일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야훼 신앙을 말살하고 바알 신앙을 국교로 삼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야훼의 선지자들을 찾아내어 학살합니다. 이때 궁내 대신 오바다가 몰래 100명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두고 먹을 것과 물을 대주어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래로 그나마 희미하게 이어져 오던 백성들의 야훼 신앙은 아합왕 때에 거의 사라져가고, 바알 신앙이 온 나라에 편만하게 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바알(주인, 왕)신은 고대 가나안인들이 숭배하던 풍요와 폭풍우의 남신입니다. 출토된 신상의 모습은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번개를 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고, 풍년이 드는 것이 모두 바알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에 사는 엘리야(야훼가 하나님)가 나타나서 아합왕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왕상 17:1).

엘리야는 아합왕에게 이 한마디의 선언을 하고 사라집니다. 엘리야는 한동안 요단강 옆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그릿 시내까지 마르자 나라를 떠나 외국 땅 시돈(이세벨의 고향)의 사르밧에 있는 어느 과부 집에 가서 3년을 숨어 지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나라를 뒤지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 이후 엘리야의 예언대로 북 이스라엘 땅에는 가뭄이 덮칩니다. 이는 비를 내리거나 멈추게 주관 하시는 분이 바알신이 아니라 아훼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지낸지 삼 년이 되던 해에, 주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귀국하여 먼저 오바다를 만나고, 오바다를 통하여 아합왕을 만납니다.

아합 :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 :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주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 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사백 신 명과 아세라 예언자 사백 명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엘리야는 단신으로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합 850명과 대결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장소는 갈멜산.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페니키아의 남쪽에 위치한 산인데 바알 종교의 성지였습니다. 단,

이 대결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으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도 장소로도 바알신의 사제들이 유리하고 엘리아가 불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합왕이 승인하여 이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바알, 아세라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아가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묵묵부답. 아합이나 백성들이나 양다리 신앙을 가진 것이 확인됩니다.

엘리아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방식을 말합니다. “각자는 서로 제단을 하나씩 만들고, 소 두 마리를 잡아서 각각 한 마리씩 각자의 제단에 각을 떠서 나뭇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누구인지 보자. 그 분이 참 하나님 이시다.” 엘리아의 제안에 백성들이 찬성하여 대결이 시작됩니다.

엘리아는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소리도 없자,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더 큰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들은 더 큰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

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찢었습니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열두 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도랑을 팠습니다. 그 다음에, 나뭇단을 쌓아 놓고, 소를 각을 떼서, 그 나뭇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네 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물과 나뭇단 위에 쏟게 하였습니다. 물을 세 번 쏟으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나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좇아 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불이 떨어져서, 제물과 나뭇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 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습니다. “야훼께서 하나님이시다! 야훼께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합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제 곧 비가 올 터이니 돌아가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별궁으로 돌아가서 이세벨 왕비에게 자기가 본 일들을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 원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 때에는 왕비가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에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은 것,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것, 백성들이 바알 신을 버리고 아훼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한 것, 백성들의 협조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등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세벨은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꼭 죽이고야 말겠다고, 그렇지 못하면 신들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이세벨은 불을 내리는 기적이 있었어도, 3년간의 가뭄을 끝내는 단비를 예언해도 돌이키지 않은 악녀였습니다.

정황들을 보면 아합왕은 이세벨 왕비의 하수인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실권을 이세벨이 쥐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 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칩니다.

이세벨이 즉시로 처형대를 엘리야에게 보내지 않고 하루의 말미를 준 이유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도 이성의 마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도망가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분노하는 이세벨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두려워 떨며 급히 도망가는 엘리야가 초라하게 보입니다.

엘리야는 북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향합니다. 유다는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도착하는데 브엘세바는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까지 동행했던 사환과 헤어집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가야 했고, 나중에는 제자 엘리사가 사환의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광야(거친 들)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싸리나무, 높이 2m정도의 관목(줄기가 여러 개 있는 키 작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뎀나무는 관목(줄기가 하나인 키 큰 나무)이 아니고, 보잘 것 없는 나무입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표준새번역)

“오, 아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공동번역)

그 위대한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보여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약5:17).

그 위대한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이고 먼 후일 예수님 시대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 때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습니다. 엘리야가 깨어 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구워 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을 걸어서 호렙산(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보통 사람이 15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몸이 지쳤는지, 혹은 생각이 많

왔는지 엘리야는 느리게 진행하여 40일이나 걸렸습니다.

호렙산은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또 이곳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계약을 맺은 곳이기도 한 장소입니다.

호렙산은 바위산입니다. 풀이 없고 나무도 특정한 장소에 몇 그루만 있는 황량한 산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날 밤에 갑자기 아훼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성경의 나중 기록을 볼 때, 아훼의 말씀은 아마도 조용하고 여린 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아훼 :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 : “나는 이제까지 만군의 하나님 아훼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훼 : “이제 곧 나 아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서 있어라.”

엘리야가 그대로 따르자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아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그러나 아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강한 바람, 지진, 불은 아훼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훼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 때에, 엘리야에게 또다시 똑같은 질문의 소리가 들려왔고, 엘리야는 다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훼 :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 : “나는 이제까지 만군의 하나님 아훼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훼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마도 이 역시 조용하고 여린 소리였을 것입니다.

너는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죽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람왕도 새로 세우고, 북 이스라엘 왕도 새로 세우고, 후배 선지자도 새로 세워야 했습니다. 나중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훤의 선지자도 자기 혼자뿐이라고 불평했는데(사실은 오바다가 숨겨 살려 둔 100명이 더 있음), 아훤께서는 7,000명의 순수 아훤 신자를 남겨두었다고 알려주십니다.

새롭게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엘리사와 마주칩니다. 엘리사는 열두 겨릿소(소 24마리, 겨리; 멍에 하나를 함께 멘 한 쌍)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집안이 상당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는 가죽옷을 입었는데 이 가죽옷은 그가 선지자라는 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투(겉옷)를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를 알아본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허락합니다.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두 마리를 잡고, 소가 메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들로 백성들과 작별의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엘리야의 선택을 과감하게 결단하여 받아들입니다. 이후로도 엘리야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는 하지만 엘리야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의 복

(시편 128편)

한 정 주

제 128편(개역개정),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 감람나무 [橄欖, olive]

감람과의 상록교목(성경이 ‘감람’으로 번역하고 있어 표기 방식을 따르나 원래는 감람과 구별되는 ‘올리브나무’다).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하며 팔레스타인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과 같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지만 이슬이 자주 내리는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매우 소중한 나무로 취급된다. 농부들은 야생 감람나무가 약 2m 자라면 그 줄기를 베고 그곳에 좋은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 우수한 수종으로 개량한다. 하지만 생장이 느려 10-14년이 경과해야 열매 맺고, 30년 이상 지나야 비로소 수확다운 수확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큰 복과 평

화를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결실하기까지의 긴 기간 동안 대적들의 침공과 약탈이 없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30년 이상 된 나무는 대개 봄에 꽃이 피고 11월 말경에 수확을 하게 된다.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기름 곧 감람유(橄欖油)는 식용(레 2:7; 왕상 17:12, 14, 16)과 의약품(겔 16:9; 눅 10:34; 약 5:14), 등유(출 39:37; 마 25:3)나 미용(신 28:40; 암 6:6; 미 6:15) 등 다양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주요 생필품이었다(눅 7:46). 이 나무의 웅장한 외모와 풍성한 결실은 아름다움과 수려함(호 14:6), 힘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복과 평화를 상징한다(시 52:8; 128:3; 렘 11:16; 호 14:6). (네이버 지식백과, 라이프성경사전)

1. 틈스성경

이 시는 가정의 축복과(1-4절) 공동체의 축복(5,6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신약에서도 입증되는 진리이다(참조, 약1:25). 그리고 이 축복은 영적으로 영혼의 정결함과 풍성함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인 생활의 윤택함과 형통함도 포함된다.

2. 석진우, 축복

이 시는 문학 유형으로 지혜의 시에 속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포수기(捕囚期) 후의 특색이며, 이 시의 성립을 포수기 후로 추정케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의로운 자며, 이 시는 의로운 자의 축복을 노래한 시라고 말할 수 있다.

A. Weiser는 이 시의 처음과 끝부분으로 보아, 이 시는 교단(教團)의 예배에 쓰인 듯 하다고 말한다. 즉 제의에 있어 관습적(慣習的)인 축복에서 생겨난 시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시는 전체적으로 ‘너’라는 개인

에게 향해져 있으며, 따라서 이 시의 최후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이 시가 교단(敎團)에서 예배에 쓰이게 된 후에 부가(附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면 절을 따라 읽어보기로 한다.

1절. ‘아하웨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행복 있으라’는 시편 제1편의 처음과 같으며, 이 ‘행복하여라(아슈레이)’는 지혜의 세계의 표현 방법이다. 지혜는 가족이나 씨족(氏族) 사이에서 자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대대로 전승된 것이며, 이 시의 내용도 2절 이하의 중심부에서 보듯이 가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 ‘그 길을 걷는다’라는 표현은 신앙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2-4절. 이 시의 중심부이다. 2절은 외국의 지배하에 있던 포수기 후에 있어서 농부는 반드시 자기 밭의 수확을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시대에 독립자존(獨立自存)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것이다. 아니 어떠한 시대에도 경제적인 독립을 하나님 안에서 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특히 이 시의 배경에 있는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포로의 시대, 경제적으로 독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행복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하여라! 너, 복스러워라! 너’라고 노래하고 있다.

3절. 포도와 올리브는 지중해 세계의 특산물이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선물로 여겨졌다. 총체적으로 식물세계를 빗대어 표현한 직유(直喩)는 당시의 독자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것 같다.

5,6절. 이 시의 결미이다. 최후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행복의 문

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축복은 최후의 5절의 결론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하나님이 시온에서 언제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인 것이다. 6절의 마지막 구는 아마도 후일의 부가일 것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너’에서 ‘이스라엘’로 비약을 한다. (시편노우트 해(下), 석진우 엮어 지음, 도서출판 성실문화, 281-283쪽)

3. 유희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축복

- 1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아 얼마나 행복한가 아하웨를 두려워하는 각 사람.
아하웨의 길을 걷는 [그] 사람!
- 2 너는 확실히 먹으리라 네 손으로 힘들여 생산한 것을.
아 얼마나 행복한가 너! 참 좋다 너!
- 3 너의 집 안쪽에 있는 너의 아내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고
너의 식탁 둘레에 [앉아 있는] 너의 아들들은
감람나무의 묘목들 같다.
- 4 보라, 다음과 같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아하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 5 아하웨가 시온에서 너를 축복하실 지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평생의 모든 나날 동안
예루살렘의 행복을 볼지어다.
- 6 그리하여 너는 너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을 볼지어다.
평안이 이스라엘 위에 머무를 지로다.

◎요목

옹겨심기 위해 가꾼 어린나무. 모나무.

1절. 행복이라는 감탄사로서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잠언에 유명한 말씀이 있다.

야하웨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잠1:7).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져야 할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다.

모든 축복의 기초,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 그것은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것, 철نا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곧 기독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기독자란 성령이 임재하여 충만한 사람을 가리킨다. 바울이 말했다. “당신은 모르십니까? 당신들은 [하나의] 성전을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들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고전3:16)

야하웨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옮겨져 야하웨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된다.

2절. 너의 손으로 힘들여 생산한 것을 먹는다. 이 구절은 경제적 독립의 귀중함을 가르치는 동시에 노동의 신성을 예찬한다.

우치무라 선생의 글 중에 ‘읽어야 할 것(성서), 배워야 할 것(자연), 행해야 할 것(노동)’에 관한 명문이 있다. 그 중에서 노동에 관한 데를 인용한다.

“행해야 할 것은 노동이다. 입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다. 붓으로 하는 저술이 아니다. 책략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다. 손과 발로하는 노동이다. 노동에 의하지 않고는 신앙은 유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은 글로써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로만 할 줄 알고 일할 줄 모르는 자는 대개 불원간에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다. 복음은 신학이 아니다. 노동이다. 성서의 가장 좋은 주해는 신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밭에서

공장에서 또는 부엌에서 오는 것이다. 노동 없이는 몸은 굶주리고 지식은 쇠약해지고 영혼은 썩는다. 노동을 천시하는 자는 생명을 버리는 자다. 노동은 곧 생명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우치무라, 1908년 1월).

아 얼마나 행복한가 너! 참 좋다 너! 이 구절은 원문이 매우 감동적인 표현이어서 그냥 산문체로 번역하면 맞지 않는다(세끼네 마사오).

3절.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아들들은 감람나무 묘목들 같다. 화목 단란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다.

4절. 보라, 다음과 같이 축복을 받는 사람. 이 시 전체는 1,2,3절이 전반부, 4,5,6절이 후반부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1절과 4절은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작이요, 인칭은 같은 3인칭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축복을 말한다. 다음에 2,3절과 5,6절은 야하웨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축복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인칭은 같은 2인칭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전반부에서는 가족의 평화, 단란, 근면, 건강을 들었고,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의 행복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예로 들었다. 왜 예루살렘인가?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미4:2, 사2:3). 거기가 야하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스라엘의 중심점)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독자일 수는 없고 따라서 5, 6절에서 용어도 구약의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거기서 용어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읽으면 될 것이다.

‘시온’은 ‘하늘’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우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스라엘’은 ‘에클레시아’로.

6절. 너의 아들들의 그 아들들을 본다. 표준 새번역에서는 여기에 ‘오래 오래 살 것이다’라는 설명을 붙였는데 그렇게 하면 원문의 뜻을 흐리게

할 염려가 있다. 여기서는 오래 살고자 하는 희망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종교적 중심지상의 시온과 예루살렘의 번영과 안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자자손손으로 이스라엘이 존속하여 주님께 복종하고 경배할 언약의 백성이 있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특권을 가진 택한 백성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였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늘의 아버지 집을 향한 순례자인,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한 것이요, 여기를 모파트는 ‘우리는 하늘의 식민지[백성]이다’라고 번역한 것이다. 하늘의 식민지 백성! 그 신분증명서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임재하시는 성령이다. 예수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롬8:26) 땅에서는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1996년 4월)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467-472쪽)

4. 우치무라 간조, 행복한 가정, 시편 128편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1)
 너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는 복되고 형통하리라.(2)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3)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4)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동시에 또한 가정 행복의 터전이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믿음이 없고, 도덕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은 결코 될 수 없다(1).

그런 사람의 노동은 반드시 값이 온다. 어쩌면 반드시 물질로 보상이 오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행복과 평강은 반드시 이에 따라 그에게 올 것이다. 그는 반드시 그의 손으로 하는 노동으로 살 것이다. 그는 독립적인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2).

그의 아내는 사교장에서 꽃을 피우는 듯한 거짓과 허영의 여성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집안에서 한 가정을 알차게 꾸려나가는 근면 성실한 천사일 것이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한 가정의 식탁이야말로 행복의 중심이다. 그런데 이 식탁을 둘러싸고 어린 것들은 갓 손 돋은 감람나무처럼 강건하고 토실토실하게 자라고 있다(3).

명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곧 인생 최선의 선물인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4).

루터는 이 시를 가리켜 Epithalamium 곧 혼인의 노래라고 불렀다. 과연 가장 거룩한 의미에서 혼인의 노래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의 노래가 있을까. (1911년 1월)

(우치무라 간조 전집 제 13권, 설우사, 383-384쪽)

※ 복과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축복'은 한자로 '빌 축(祝)', '복 복(福)'이다. 이를 국어 사전에서는 '행복을 빚', '신의 은혜를 구하여 빚'으로 설명하고 있다(창 27:41; 시129:8; 롬12:14; 고전4:12). 즉, '복을 빌어 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 이는 곧, '하나님 어디 가서 (누구누구에게) 복을 빌어와서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결국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참으로 가당치 않는 말이다.

이런 그릇된 표현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어의 영향 때문이다. 일본어에서 축복은 ①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② '사람이 누구를 위해 복을 빚'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시 누구에게 복을 빌어와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주십시오)."로 고쳐서 말해야 한다. 최근에 번역된 개역개정판 성경은 '축복'과 '복'을 아주 명쾌하게 잘 구분하고 있다(창12:3).

[네이버 지식백과] 축복 [祝福, blessing] (교회용어사전 : 올바른 용어)

◎ 참고: 위의 석진우, 유희세, 우치무라 선생님의 글 안에 있는 '복', '축복'의 단어는 책에 있는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5. 맺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4천 건, 이혼은 9만2천 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출산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0.7명으로 세계에서 꼴찌이다. 그에 따른 인구감소와 가정 소멸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시를 읽으면서 가정소멸, 인구감소의 시대에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과 각자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가정의 복은 아하

웨(시온, 하늘)에게서 나온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아하웨를 두려워하고 아하웨의 길을 걷는(실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가정의 복이 예루살렘의 행복과 이스라엘의 평안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연상된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사회와 국가가 평안하고 번영해 나간다.

현대 시대에는 가족과 가정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 시의 배경이 된 시대에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다. 가정의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 아하웨에게 복 받은 가정의 가장인 남편은 먼저 아하웨를 경외(敬畏)하며 그의 길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남에게 기대어 의존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해야 한다. 그럴 때 그 노동은 하나님의 복으로 헛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게 된다. 남편의 바른 신앙과 근면, 성실함의 기본을 말함이다. 집안에서 가장인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서 자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때 비로소 그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해진다. 그러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서로 합심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의 집 안에 있는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들 같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큰 복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아주 소중한 나무였다. 아내에 비유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와 포도주를 생산한다. 자녀들에 비유된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유가 나온다. 올리브유는 음식, 등불을 밝히는 등유(燈油), 의약품과 미용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생필품이었다. 특히 좋은 올리브 나무는 크게 자란 다른 나무의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접붙이는 데에 사용되어, 우수한 수종으로 개량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친구들과 이웃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여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올리브 나무와 같을 것이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순도순 식탁에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는 평화로운 신앙인의 가정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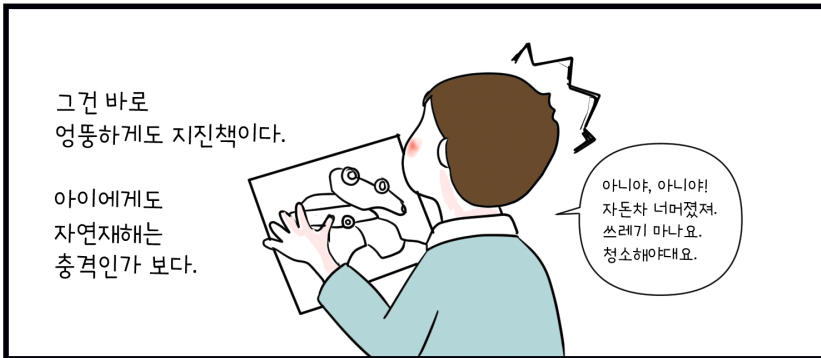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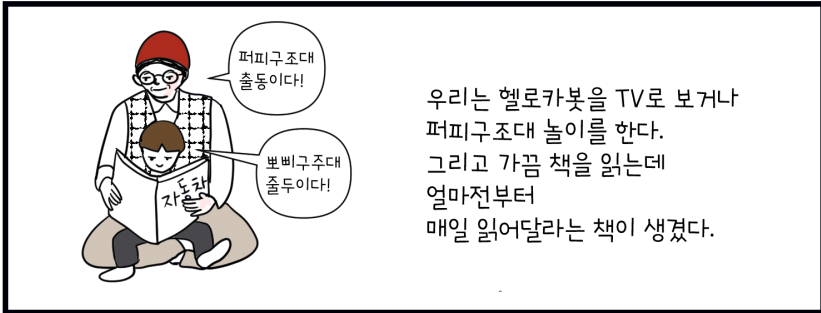
오류동 모임의 식구들도 매주 맛있는 음식과 차를 마시며 대화의 시간을 나눈다. 나는 그 시간이 참 좋다. 모임 후에 곧바로 헤어지면 많이 아쉬울 것이다. '식구'란 함께 밥을 먹는 사이이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임 식구들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생활하다가 모이는 형제자매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앙이 바로 서고 힘을 얻으며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며 친해지는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시편 128편의 시처럼 하나님에게 복 받은 우리들의 가정과 모임도 행복과 평안이 머무르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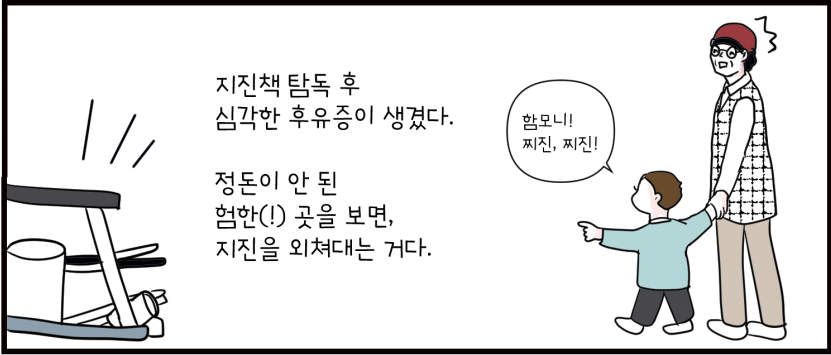
청년들이여! 그리하여 이 복 받은 가정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시의 마지막 6절의 소중한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결혼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공적인 일이라는 말씀이 다시금 마음에 새겨지는 구절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미스터리한 아이 생각>





지진책 탐독 후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다.

정돈이 안 된
험한(!) 곳을 보면,
지진을 외쳐대는 거다.

함모니!
찌진, 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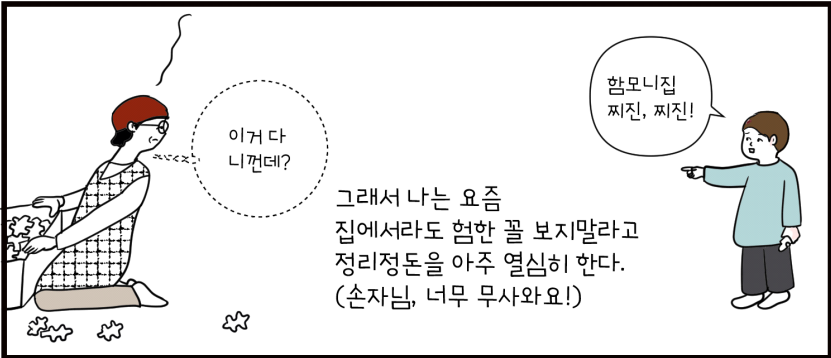


찌진, 찌진
하나 더.
시러시러!



아이구, 이녀석아.
동네산책 한 번에
지진이 몇 번이야?

그러나 아이의 지적대로
치워야할 곳이 많기는 하다.



이거 다
니꺼데?

그래서 나는 요즘
집에서라도 험한 꼴 보지말라고
정리정돈을 아주 열심히 한다.
(손자님, 너무 무사와요!)

함모니집
찌진, 찌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다정한 이름

최 제 현

Word on a wing (날개 위의 말)

노래 David Bowie

In this age of grand illusion You walked into my life out of my dreams I don't need another change still you forced away into my scheme of things You say we're growing, Growing heart and soul in this age of grand illusion You walked into my life out of my dreams Sweet name, you're born once again for me Sweet name, you're born once again for me Oh sweet name, I call you again You're born once again for me Just because I believe don't mean I don't think as well	이 거대한 환각의 시대에 당신은 내 꿈으로부터 내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난 다른 변화를 원치 않았지만 당신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 거대한 환각의 세대에 마음과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죠 당신은 내 꿈으로부터 내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태어난 다정한 이름이여 나를 위해 다시 태어난 다정한 이름이여 다정한 이름이여, 다신 한번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도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

<p>Don't have to question everything in heaven or hell Lord, I kneel and offer you my word on a wing And I'm trying hard to fit among your scheme of things It's safer than a strange land but I still care for myself and I don't stand in my own light Lord, lord, my prayer flies like a word on a wing My prayer flies Like a word on a wing Does my prayer fit in with your scheme of things? In this age of grand illusion You walked into my life out of my dreams Sweet name, you're born once again for me Just as long as I can see, I'll never stop this vision flowing I look twice and you're still flowing just as long as I can walk</p>	<p>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나는 무릎을 꿇고 당신께 나의 말을 날개 위에 실어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계획에 따르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보다 안전하지만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챙기고 스스로 빛을 가로막지 않아요 주님, 나의 기도는 날개 달린 말처럼 날아갑니다 내 기도는 날개 위의 말처럼 날아갑니다 나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맞을까요? 이 거대한 환각의 시대에 당신은 내 꿈으로부터 내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태어난 다정한 이름이여. 내가 볼 수 있는 한, 이 시작의 흐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시 봐도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나는 당신 곁에서 걷고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다.</p>
---	--

<p>I'll walk beside you, I'm alive in you. Sweet name, you're born once again for me And I'm ready to shape the scheme of things Ooh, ready to shape the scheme of things Ooh, ready to shape the scheme of things Ooh, Lord, I kneel and offer you my word on a wing and I'm trying hard to fit among your scheme of things [chorus] Does my prayer fit in with your scheme of things?</p>	<p>나를 위해 다시 태어난 다정한 이름이여 그리고 난 그 뜻을 전개해 나갈 준비가 됐어요 오, 그 뜻을 전개해 나갈 준비가 됐어요 오, 그 뜻을 전개해 나갈 준비가 됐어요 오, 주님, 나는 무릎을 꿇고 당신께 나의 약속을 드리며 당신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렴] 나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합당할까요?</p>
<p>이 노래는 데이빗 보위(David Bowie)이 1976년 작사·작곡한 노래인데, 처음에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이십 년이 지나 재평가 받기 시작했으며 1997년 빌보드 얼터너티브 에어플레이 차트(미국 라디오 방송순위)에서 1위에 오르며 현재는 그의 대표곡으로 꼽힙니다.</p>	

“나는 신을 믿을 만큼 멍청하지 않다!”

이것은 데이비드 보위가 자신만만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보위(영국, 1947~2016)는 음악, 패션, 디자인, 스타일 등 대중 문화 다방면에 영향을 끼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입니다. 끊임없는 음악적 변신으로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1996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 공연(Performance) 부분에 헌액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Word on a wing, Peace on earth 등 다수이며, 사망 직후(2017) 그래미상 5개 부문의 상을 휩쓸며 사후 수상 기록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보위는 유산을 탕진한 아버지와 웨이트리스 어머니 사이에서 이복형제들과 자랐습니다. 연속극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 상황 파악을 하셨겠지요. 어머니는 빈털터리 아버지의 마지막 여자이며, 보위는 전처소생들로부터 애정 대신 미움을 독차지했을 것이라는 정도는 안 봐도 상식입니다. 15세 때 여자 문제로 친구와 싸우다가 눈을 다쳐 동공확장증으로 기이한 외관을 갖게 되었고, 불성실한 학습 태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드라마처럼 환히 보일 겁니다.

본명은 David Robert Hayward Jones, 17세인 1964년 음악계에 데뷔하였고 유명했던 몽키스 멤버 중 한 명인 데이비 존스(Davy Jones)와 이름이 비슷해 데이빗 보위로 개명하였습니다.

보위는 코카인의 부작용을 알지 못한 채, 마약으로 영혼을 확대하면 인간의 감각이 한계점을 넘겨 음악의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플레이보이”지와 인터뷰(1976)에서 LSD 환각 체험은 원래 머릿속에 있던 음악이 나오는 것일 뿐, 도움이 안 되었다고 회고했는데, 중독 후에는 자신이 만든 곡도 기억하지 못하여 곡을 만들 때, 같은 부분만 계속 반복하며 맴돌다 결국 곡을 완성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술과 마약으로 30세를 못 넘기고 요절하는 스타들이 많았는데, 에이미 와인하우스(27세. 알코올), 지미 핸드릭스(29세. 알코올. 마약), 재니스 조플린(27세. 헤로인), 짐 모리슨(27세. 헤로인) 등 천재 가수들이 이런 오해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처럼 예술을 위해 굶고 짊게 살겠다”며 술과 마약을 따라 하는 젊은 추종자들을 다수 만들어 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풍조를 멋으로 알고 따라 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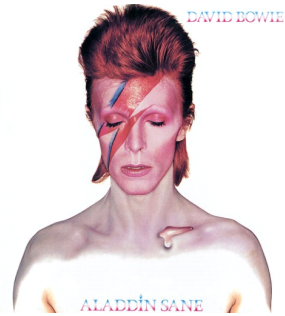


했습니다. 왜 “이나까 사무라이(칼 차고 거들먹대는 걸멋 든 시골 무사)”가 떠오르까요?

보위는 편파적인 시각에 의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 “플레이보이”지와 인터뷰에서 “히틀러의 카리스마는 미디어를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어진 슈퍼스타 이미지였다”고 한 말이 앞뒤를 자르고 히틀러를 슈퍼스타라 했다고 보도되어 집중 비난을 받았고, 공연 중 오른손을 올리는 동작이 스틸

컷으로 편집되어 나치식 경례를 했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주변의 유대인 친구들도 그가 나치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무신론자이며 기이한 외모를 가진 마약중독자 보위는 나치라는 낙인을 찍기에도, 집단 괴롭힘의 대상으로도 자신은 억울하지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1976년 전후, 독일에서 고통스러운 코카인 중독치료 과정을 견디면서 나온 음반 “Low”, “Heroes”는 음악성과 역량이 성숙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Word on a wing”도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재활을 경험한 보위는 예수와 십자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때부터 십자가 목걸이를 늘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고백과도 같은 “Word on a wing”을 발표하니 대중의 비난이 쇄도하였습니다. “자신은 신을 믿을 만큼 멍청하지 않다고 하더니 이런 곡을? 마약이 이래서 무서운 거다” “보위는 이 곡으로 자기방어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약쟁이가 감히 하나님을 팔아?” 이런 반응, 이해됩니다. 쓰레기 같다고 욕먹던 사람이 갑자기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니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위선이

라 생각했습니다. 대중들이 편하게 욱해도 되는 악당, 보위가 불쑥 개과천 선했다며 커밍아웃하는 것이 계산된 수작으로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익숙해야 했던 보위에게 세상은 이렇게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줄 암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박해 당시, 크리스천들은 서로를 확인하는 비밀 코드로 물고기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만 아는 하나님의 비밀 코드는 바로 “다정하신 이름(sweet name)”이었습니다. 보위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것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갈 데까지 간 인간, 외로운 보위가 경험한 하나님의 다정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정함이 주는 감동의 깊이는 견디기 힘들었던 외로움의 깊이와 같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친 영혼이 하나님의 다정함을 만났을 때, 걸잡을 수 없는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정함이 주는 이 감동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다정한 이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암호, “다정한 이름(sweet name)”에 동의하신다면 이 노래의 소개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날개 위의 말”이라는 제목이 어색한가요? 윤지영 작사. 작곡 윤세화가 노래한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이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어느 날 당신이 그리워질 때 당신 곁에 흐르리”라는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이 노래를 생각한다면 “날개 위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word)이란 기도를 뜻하므로 “내 기도에 날개가 있다면”이라 해석해도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 하나님께로 훨훨 날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거대한 환각의 시대에 하나님은 내 꿈으로부터 내 삶으로 들어왔다”에서 “거대한 환각의 세계”란 음악과 마약과 대중에 취해 자신의 본질을 잃고 살던 보위의 세상이며 “내 꿈으로부터 내 삶으로”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던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입니다. 즉, 아무 의미 없는 환각 같은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이제야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기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이 회심하여 대성통곡하고 “Why me, Lord(주여, 왜 저입니까)”를 만들었는데, 크리스가 후일 말하기를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이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이 노래의 가사에서 데이비드 보위가 말하는 “난 다른 변화를 원치 않았지만 당신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고 한 것도 같은 의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인 삶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꿔 주셔서 기대치 못했던 새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면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별 기대 없이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다시 태어나셨습니다.”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신앙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초보 신앙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원하시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는 주의 죽음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으로, 주의 부활을 하나님

이 자신에게 온 구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보위의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보위의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한 것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속의 하나님, 멀리 계신 신화 속의 하나님이 보위에게 다정한 친구로 오셨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상이라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가 예수의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 본 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지니이다(요 20:28).”라며 환상이 아닌 현실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 기뻐하는 반전이 연상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부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자기 자신이 새로 태어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싶어 하는 마음 아시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고 또 부르고 싶지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다정한 이름이여, 다시 한번 당신을 부릅니다”라며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데 보위가 하나님을 만나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 “word on a wing”의 word는 “다정한 이름”이며, 보위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위가 하나님 만난 것이 왜 나의 맘까지 감동케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네요. “내 기도가 당신의 뜻에 합당할까요”라는 가사에서는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려는 진지한 신앙인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은 사람은 빌 곳이 없다”는 옛말도 있는데, 도대체 철없고 교만한 보위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

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누가 감히 보위를 약쟁이라 욕할 수 있을까요? 보위는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가수 생활 초기까지와는 달리 중년 이후에는 평안한 가정생활을 보내다 2016년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암에 걸린 것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기에 갑작스러운 그의 사망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누명에도 대중이 호응하여 모질게 맞았고, 억울하게도 억지 사과까지 해야 했던 천덕꾸러기 보위가 2003년 56세의 나이에 혁신적 음악, 예술적 영향력, 사회적 메시지 등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장, 대 십자가 기사(GBE)를 받아 그 이름 앞에 Sir(卿,경)를 붙여 Sir David Bowie로 불리며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보위와 그의 노래 “Word on a wing”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악적 재능은 인정받았으나, 대중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고, 반면교사였던 보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을 “다정하신 이름”이라 부르며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고마워하고 더 많이 사랑한 것을 이 노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빛을 탐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고마워한다는 누가복음(7:41-43)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외로운 영혼을 이처럼 포근히 안아 주시는 하나님이 ‘다정하신 이름’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다정하신 분이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다정한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리며, 당신을 다시 한번 불러 봅니다.

“다정하신 이름이여!”

박찬운 선생과 최병인 선생을 그리워하며

2024.4.7. 두 분의 추모회에서 하신 말씀

김 성 기

1. 박찬운 선생

▶ <고별문> 최병인 선생이 박찬운 선생을 보내면서 쓴 글

그는 입학시험이든 채용시험이든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국제신사라는 공군 갑종장교(현 학사장교) 필기시험에 저희 대학 출신으로서는 1차에 합격한 두 사람 중 하나였고, 재직 시에는 공군사관학교 교수도 역임했습니다. 형은 노평구 선생님 주례로 공군재직 시, 대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공군 소위로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4·19 때엔 가마니로 현수막을 만들어 들고 데모행렬에 참여했고, 퇴직 후엔 제주도 서귀포 강정마을, 민·군 복합 항만건설 반대 데모가 판치자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큰 항구 건설은 당연하다며 이에 맞서려고 비행기로 날아가 동참하는 열혈애국자였습니다.

또 세상이 혼탁하다고 ‘나까지 오염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유력한 분에게 인사 청탁 한 번 한 일이 없습니다.

▶ <소이부답 笑而不答> 김영웅 선생이 박찬운 선생 영전에 드리는 글

그의 성품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올곧은 충성심’이라 하겠다. 누가 가르쳐서라기 보다는 천품이라 보는 게 옳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5·6세 철모르는 어린 시절, 취학 연령이 되었는데, “일본 놈이 가르치는 학교에는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대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당시 한국의 중산층 가정이었으므로 특별히 반일 감정이 있는 가정 분위기도 아니요, 형제들 모두 학교에 다녔는데 이제 취학연령이 된 어린아이가 고집을 부리니 “별난 녀석이구나!” 하고 어처구니없어 하셨지만, 어른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동네의 또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는 취학 연령이 2년이나 지나도록 집에서 놀다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뒤에 입학 하였고, 줄곧 또래들 보다 두 살 정도 늦게 학교를 다녔다.

필자와 만난 것은 대학에서인데, 나와는 3년 후배로 내가 4학년때 그는 1학년이었다. 우리는 유희세 교수님의 지도로 매주 예배를 보게 되어 그와 친숙해졌다. (중략)

대학 졸업 후 군복무는 서울 대방동에 있던 공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그는 일요일이면, 서울 종로2가 YMCA 노평구 선생의 일요일집회에 출석했으며, 충실한 그의 성품은 노평구 선생의 손발이 되어 심부름을 하고 봉사했다.

그 무렵 나의 결혼식이 노평구 선생님의 주례로 나의 근무지였던 전북 익산시에서 있었는데, 가난하던 시절이라 연미복 한 벌로 무교회 여러 선생님들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돌려가며 입었다. 그래서 흥성에 있었던 연미복을 가져다가 노평구 선생님께 전달하는 일을 충실한 일꾼, 박찬운 군이 맡았다. 그리고 군대 생활의 곤고함 중에도 결혼 후 익산까지, 나의 신혼살림집을 찾아줬던, 내게는 둘도 없는 고마운 친구였다.

그런 그의 올곧은 성품은 직장생활에서도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요즘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신장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반면에 수업태도가 엉망인데도 강력한 지도를 펼칠 수 없게 되어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대책이 없었다. 박찬운 선생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정년을 채우기 전에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나고 말았다.

그후 일심재단에서 이사직을 잠시 맡아 보셨는데, 그것은 ‘아니면 아닌’ 그의 올곧은 원칙주의 성품을 잘 아는 벗들이 재단운영을 바르게 하도록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추천했던 것이다. (중략)

그의 충성심을 드러낸 또 다른 에피소드로, 우리의 동료 J형이 뇌졸중으로 대전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박찬운 선생은 뇌장암 진단을 받고, 이미 병세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되어 수술을 포기하고 치병 중에

있으면서도 대전까지 문병을 간 것이다. 대전의 J형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건강한 친구가 다녀갔나 보다 생각하고 있다가, 얼마 후에 별세 소식을 듣고 놀랐을 것이다.

그는 문병을 다녀온 뒤, 나에게 전화로 ‘대전에 볼 일이 있어 내려갔기에 J형을 찾아갔는데 그쪽 스케줄이 있어서 대화는 못하고 얼굴만 보고 왔다’고 했다. 대화할 시간이 넉넉했다 한들 자기 병세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였겠는가. 역시 웃기만 할 수밖에 없는 소이부답(笑而不答)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대전에는 무슨 일로 갔을까. 나의 추측으로는 선산을 둘러보고 자신이 누울 자리를 확인하러 갔을 것이며, 가는 길에 육신의 고통을 참으면서 J형을 찾아간 것은 고별인사를 할 겸, 일상적으로 해온 바 그의 직무에 관한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일이다.

박 선생님은 이제 강 건너 마을을 찾아, 심령의 평안을 얻어 강을 건너 가셨다. 난들 얼마나 이 땅에 남아 있으랴. 머지않아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둘이 만나면 옛날에 가슴에 두고도 나누지 못했던 말, 소이부답(笑而不答)의 긴긴 사연을 밤새워 풀어내 보고 싶다.

2. 최병인 선생

▶최 선생이 박찬운 선생에게 보낸 위로(박 선생 가시기 2주 전).

얼마나 힘드나? 뭐라 할 말이 없네. 고3때 내가 병들었던 적이 있었지. 그때 학교도 못 간 게 한 달이나 됐었네. 내 심정은 사회에서 완전히 떠나고 싶었다네. 대학에 가서 나는 새장에 갇혀 있는 새처럼 고독을 씹으며 살았네. 몸은 아프고 앞을 내다보면 캄캄했던 그때 찬운이를 만나 유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어렴풋이 길을 찾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네. 마침내 졸업을 하였으나, 3년간 무직 상태에서 또 다시 내 맘은 병들어 있었네. 지금 생각하면 고독이고 절망이었네.

내가 수술을 받고 병석에 누워보니 나라는 존재가 완전 고립무원의 존재임을 절실히 느꼈네. 지금 찬운이가 그런 상태일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군. 그런데 사람이 고독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고 보네.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생각이 드네. 아내가 없어서도 아니고, 자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네. 병석에 누우면 내 대신 병을 앓아 줄 사람이 없고, 사경을 넘나들 때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음이 절실히 느껴지더군. 사람이 늙고 병들면, 그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음을 철저히 느낄 거야.

그래서 키엘케골은 ‘단독자’라고 말한 것 같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라네. 오늘 죽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했지. 그는 또한 빨리 죽어서 예수 곁으로 가고 싶다고도 했어.

오래전 유 선생님이 일본의 한 환자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지. 사람들이 위문을 갔다가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왔다고.

그래. 운암(雲巖). 오늘은 오늘을 사는 거야. 그래서 1일1생(一日一生)이고, 1일1사(一日一死)이지. 아무리 괴롭고 외로워도 오늘 하루는 살아야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이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 의미를 깨달았네. 이 말은 죽은 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 곧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지.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 속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네. 그래. 우리는 오늘 죽어도 희망이 있다네.

2020년 4월 8일 병인이가

【성명주 선생님 소천】

성명주 선생님이 2024년 4월 21일(일) 돌아가셨습니다. 총명한 지혜와 단정한 믿음으로 후배들의 모범이 되어주셨지요. 선생님은 부군이신 고 송기영 선생님과 함께 스승이신 송두용 선생의 뜻을 따르며 충성했던 분입니다. 특히 초기 오류 문고의 설립을 위해 장서 정리와 기록을 담당해주셨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드님 송인선 님과 송인숙, 송인자, 송인에, 송인옥 님이 있습니다. 주의 위로를 빕니다.

【고야마(小山哲司) 선생의 책 기부】

일본 이바라키현의 미토(水戸) 성서집회 소속인 고야마 선생은 2019년 한국을 방문하여 오류문고의 존재를 알게된 후, 무교회 신앙서적을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서가에 있는 책 중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을 골라 기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풀무학교의 배지현 선생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고야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토지와 생명 수호, 오키나와에서 평화를(堀切 리에 저)
2. 쌀과 농민-오키나와 伊江섬(阿波根昌鴻 저)
3. 생명은 보물-오키나와 반전의 결심(阿波根昌鴻 저)
4. 일본은 왜 기지와 원자력발전을 멈추지 않는가?(矢部宏治 저)
5. 오키나와 미군기지 관광 가이드(矢部宏治 저)
6. 최하위 오키나와 학력을 어찌하나.(西本裕輝 저)
7. 미군점령 하의 오키나와 교회 /8. 후쿠시마에서 온 편지(関礼子 저)
9. 말의 등불(末盛千枝子 저) /10. 동일본대지진 那珂市の 기록
11. 부모가 아이가 되는 때(細川貂貂 저)
12. 할렐루야, 귀여운 그리스도교(단편만화)
13. 돌려라, 마법 구슬(와타리 무츠코 저) /14. 影의 迷宮(齊藤洋 저)
15. 高志(다카시)와 孝一(코이치) (篠田勝夫 저)
16. (舟崎克彦 저) 호펜 선생과 왕자, 호펜 선생과 크리스마스, 호텐 선생과 웃는 갈매기호, 호펜 선생과 동물사전(4권)

【 오류문고 안내 】

오류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A)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우편번호 46050

월간 성서신애 제512호 2024년 5월

인	쇄	2024년	5월	1일
발	행	인	손	현
편	집	인	손	현
인	쇄	인	김	진
발	행	소	성	서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	